

Daily Auto Check

2022. 6. 28 (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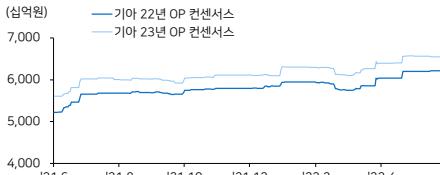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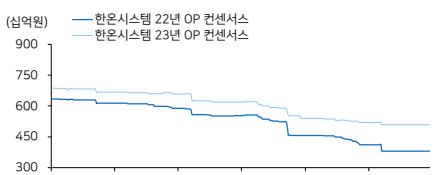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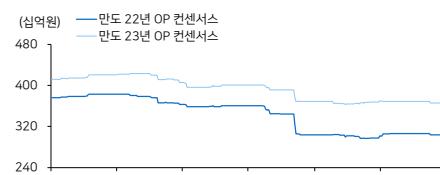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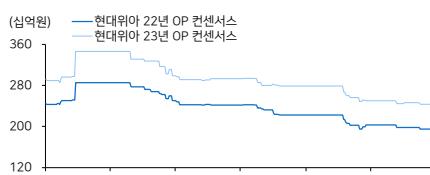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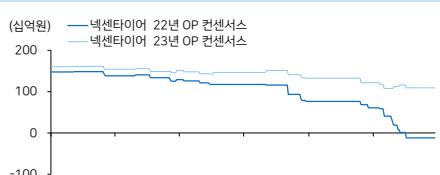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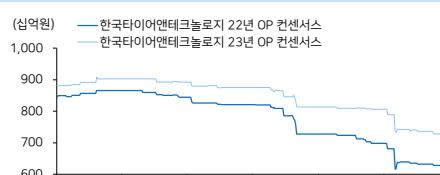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10%까지 오른 리스 금리…소비자 "이자가 무서워" (조선비즈)

국내 자동차 리스 상품의 금리는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기준금리는 연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자동차 할부 금리도 뒤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 가격과 할부금리가 같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편.

<https://bit.ly/39UbIUs>

후수출마저…한국,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 (서울경제)

올해 누적 중국 자동차 수출은 96.9만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90.3만대로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함. 그간 '질 낮고 저렴한 차로 인식되던 중국산 자동차는 기술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곳곳을 조용히 공략하는 중.

<https://bit.ly/3bkZ6wj>

Gas prices not denting demand for new cars (Automotive News)

2008년 걸린당 4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은 SUV와 픽업트럭 수요 감소로 이어졌으나, 최근의 휘발유가격 상승(미국 평균 5달러/걸린당 기록)은 내연기관차량의 연비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수요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분석.

<https://bit.ly/300ppJF>

Japan pushes to remove zero-emission vehicle target from G7 statement, draft shows (Reuters)

일본은 이번주 예정된 G7 성명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비중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공동 목표에 대한 언급을 제거할 것을 제안. 일본 자동차 산업은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전기차 전환을 저해하는 로비 활동을 하는 중.

<https://reut.rs/30pxrt1>

장재훈 현대차 사장 "7월부터 후인도 시작"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오는 7월부터 일본에서 차량 인도를 본격 시작할 예정.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일본 승용차 시장에 12년 만에 재진출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 일본 판매 아이오닉5는 스탠다드 58kWh, 롱레인지는 72.6kWh의 배터리 탑재.

<https://bit.ly/3HXVA7t>

"대만 폭스콘, 인니 전기차 사업에 10조원 투자"…新수도 프로젝트에도 참여 (조선비즈)

대만 폭스콘은 전기스쿠터 스타트업인 고고로와 약 10조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및 기타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 폭스콘은 지난해 10월 전기차 3종을 공개하여 전기차 비즈니스 확장을 알린 바 있음.

<https://bit.ly/3blQdmc>

China's EV market hits its stride with 1-in-3 sales being electrified (Teslarati)

지난 5월 중국 BEV 판매비중은 전체의 25%를 차지, yoy +91% 성장함. PHEV는 yoy +187% 성장함. 2022년 누적 BEV 판매비중은 20%이며, 향후 2025년까지 중국 신차 판매의 대부분이 BEV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https://bit.ly/30w3858>

FV reveals ID. AERO concept — its first all-electric sedan offering a 385-mile range (Electrek)

폭스바겐은 전기차 세단 ID.AERO를 공개, 2023년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출시 예정. 그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인 ID 시리즈에 없던 순수 전기 세단이라는 점이 주목됨. 77kwh 배터리로 620km(WLTP) 주행거리를 제공할 예정.

<https://bit.ly/30pRis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